

2025년 1분기 중국 무역 동향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2025. 4. 23(수)

T. (86-10) 6505-2671/3 / E-mail : beijingk@kita.net

● 요약

○ (수출) 1분기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.8% 증가

- 3월 수출은 12.4% 증가하여 시장 예측치(4.4%)를 상회
- 10대 수출품목 중 7개 품목의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
- 반도체, 컴퓨터 등의 품목은 강세, 플라스틱 제품, 강재 품목은 약세

○ (수입) 1분기 중국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△7.0% 감소

- 3월 수입은 △4.3% 감소하여 시장 예측치(△2.0%)를 하회
- 10대 수입품목 중 4개 품목의 1분기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
- 1분기 무역수지는 약 2,729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대비 75.8% 증가

1 수출입 동향

- 1분기 수출액은 5.8% 증가한 8,536억 7천만 달러(한화 약 1,215조 원), 수입액은 △7.0% 감소한 5,807억 달러(약 827조 원) 기록, 무역수지는 2,729억 7천만 달러(약 389조 원) 흑자로 전년 동기대비 75.8% 증가
- 3월 당월 수출 및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2.4% 증가, △4.3% 감소, 무역수지는 1,026억 4천만 달러(약 146조 원) 흑자로 49.2% 증가

< 중국의 수출입 추이 >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2022년	2023년	2024년	'25. 3월	'25. 1분기
수 출	35,444 (6.9)	33,790 (△4.7)	35,772 (5.9)	3,139.1 (12.4)	8,536.7 (5.8)
수 입	27,065 (1.0)	25,569 (△5.5)	25,850 (1.1)	2,112.7 (△4.3)	5,807.0 (△7.0)
수 지	8,379	8,221	9,922	1,026.4	2,729.7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중국의 1분기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0.2% 증가한 1조 4,343억 7천만 달러(약 2,042조 원)를 기록하였고, 3월 수출입 총액은 5,251억 8천만 달러(약 748조 원)로 전년 동월대비 5.0% 증가함
 - (수출) 1분기 수출액(약 8,536억 달러)은 역대 1분기 최고치 경신, 강세 지속
 - 반도체, 컴퓨터가 전년 동기대비 10.8%, 6.8% 증가하는 등 10대 수출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. 플라스틱 제품, 강재는 각각 $\Delta 2.6\%$, $\Delta 4.8\%$ 감소
 - 12대 무역대상국(지역) 중 한국을 제외한 11개 국가(지역)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. 특히 아프리카(11.3%), 베트남(16.5%), 인도(13.8%)로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
 - (수입) 1분기 수입액(약 5,807억 달러)은 지난 5년 내 1분기 최저치 실적
 - 10대 수입품목 중 반도체, 컴퓨터, 동광석, 동재 4개 품목의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, 철광석, 천연가스, 식량은 두 자릿수 감소세 기록
 - 12대 무역대상국(지역) 중 아세안, 중국 대만을 제외한 10개 국가(지역)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. 특히 중남미($\Delta 14.6\%$), 호주($\Delta 28.6\%$)로부터의 수입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임
- 미·중 무역 갈등 격화로 수출입 모두 하방 압력이 높은 상황이며, 향후 무역상대국 재편, 세계 무역환경 변화 가속화 등이 예상됨
 - 1분기는 전반적으로 수출 강세, 수입 약세 추세. 3월 일부 품목 수출 증가는 관세 발효 전 러쉬 효과, 수입 감소는 국제상품 가격 약세 영향 등으로 분석
 - 2024년 미국이 수입한 PC 모니터, 스마트폰의 각 70%, 노트북의 66% 이상이 중국산으로 파악. 3월 무역 실적은 미중관세 부과 영향의 일부만 반영, 4월 실적은 더욱 악화 예상
 - 중국의 미국, 유럽 수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신흥시장(중남아, 중동 등) 무역 확대 필요성 제기 등 세계 무역환경 및 무역상대국 재편 가속화 전망

< 수출입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 평가 >

구분	기 관	주 요 내 용
중국	 해관총서 (海关总署)	- 2025년 1분기 중국 수출입액은 10조 위안 상회(8분기 연속), 역대 1분기 최고치 - 민영기업(비중 56.8%), 외국인 투자기업(29%)의 수출입액이 각각 5.8%, 0.4% 증가 - 기계 및 전자제품 수출입 증가세 지속, 가전제품, 노트북 컴퓨터, 전자기기 부품 수출 강세, 자동 데이터 처리장비 부품, 선박 및 해양 건설 장비 수입 강세 - 최근 미국의 고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상응 조치를 취했으며, 자국 권익 보호 및 국제 무역 공정성 수호에 총력을 다할 것임
	 은하증권 (银河证券)	-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, 유예, 일부 품목 면제 등의 연이은 조치로 미국 관세 정책은 불확실성이 높으며, 향후 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- 미-중 간 고관세 부과 조치 발표 이후 미국 수입업자는 전반적으로 관망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- SCFI 지수(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) 중 미국 서부 노선은 약 $\Delta 4.8\%$, 미국 동부 노선은 $\Delta 2.4\%$ 하락했으며 향후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
	 차이나 메리츠 증권 (招商证券)	- 품목별로는 3대 신품목(전기차, 선박, 리튬 배터리)의 수출 강세 지속 - 장기적으로 중국 수출기업의 미국, 유럽 등 전통시장 가공품 무역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이를 상쇄하기 위해 신흥시장(중아시아, 중동 등) 무역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
	 화창증권	- 3월 수입 증감률($\Delta 4.3\%$)은 3월 국제상품 가격 약세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, 낮은 원자재 마진은 업스트림 원자재 기업의 실적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 - 2분기 중국 산업생산은 무역 마찰 및 경기둔화의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, 중간재 수입 약세가 지속될 전망
해외	 로이터 (Reuters)	- 중국 3월 수출증감률(12.4%)은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예상치(4.4%)를 상회. 수입증감률($\Delta 4.3\%$)은 시장예상치($\Delta 2.0\%$)를 하회 - 1분기 대미 무역흑자는 766억 달러로 전년 동기(약 702억 달러) 대비 증가 - 일부 경제학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은 향후 세계 무역 흐름 및 기업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, 글로벌 성장에도 위협적이라고 우려 - 중국의 농산물 및 대두 수입은 큰 폭 감소하였으며, 미-중 관세 협상이 한창 이던 3월 대두 수입량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- 일부 경제학자는 중국 국영 수입업자들이 이미 미국산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받았고,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완전히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
	 SCMP	- 3월 중국산 대규모 기계 선적량이 급증, 관세 발효 전 수출러쉬 효과가 반영됨 - 캐피탈 이코노믹스 중국 경제 책임자는 중국 선적량이 향후 몇 개월 동안 감소할 것으로 전망, 향후 중국 수출이 현재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 -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이후 스마트폰, 컴퓨터, 메모리 칩 등 일부 전자기기 품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 - 일부 애널리스트는 미국 정부가 첨단 기술 제품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높은 점유율 및 필수적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- 2024년 미국이 수입한 PC 모니터, 스마트폰의 70% 이상, 노트북의 66%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파악됨
	 블룸버그	- 미-중 양측이 관세를 철회하거나 인하할 의향 및 징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, 현재의 관세 수준은 명백히 양국 모두에게 해를 끼칠 것 - 중국의 3월 무역 데이터는 미-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, 4월 무역실적은 더욱 악화할 수 있음 - 미-중 갈등 격화로 무역 기업들의 장기간 교착상태 대비가 확산되고, 세계 무역 상거래 환경 및 무역대상국 재편 등이 가속화될 전망

출처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 (2025.04.15)

3 국가(지역) 및 품목별 동향

- (국가별 동향) 1분기 기준 12대 수출대상국(지역) 가운데 일대일로 참여국 (증감률 6.1%), RCEP(4.7%), ASEAN(8.1%), EU(3.7%), 미국(4.5%), 아프리카 (11.3%), 베트남(16.5%), 일본(2.8%) 등으로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, 한국(△1.7%)으로의 수출액은 감소
- 수입의 경우, ASEAN(증감률 2.8%), 중국 대만(17.8%)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증가했으나, 일대일로 참여국(△4.7%), RCEP(△4.7%), EU(△6.3%), 중남미 (△14.6%), 한국(△0.7%), 미국(△1.4%), 호주(△28.6%), 아프리카(△9.4%) 등 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감소

< 1분기 중국의 TOP 12 수출입 대상국(지역)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별	금액	증감률	국가별	금액	증감률
1	*일대일로	4,163	6.1	*일대일로	3,167	△4.7
2	*RCEP	2,353	4.7	*RCEP	1,980	△4.7
3	*ASEAN	1,461	8.1	*ASEAN	917	2.8
4	*EU	1,221	3.7	*EU	584	△6.3
5	미 국	1,156	4.5	중국 대만	526	17.8
6	중국 홍콩	712	8.3	*중남미	526	△14.6
7	*중남미	657	9.6	한 국	408	△0.7
8	*아프리카	459	11.3	미 국	390	△1.4
9	베트남	425	16.5	일 본	345	△4.1
10	일 본	379	2.8	러시아	305	△6.7
11	한 국	335	△1.7	호 주	275	△28.6
12	인 도	318	13.8	*아프리카	267	△9.4

출처: 중국 해관총서 *일대일로, RCEP, EU, ASEAN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에는 상기 개별국가 실적 포함

- (품목별 동향) 1분기 상위 수출 품목 1~3위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5.6%), 반도체 및 집적회로(4.8%), 방직실 및 직물(3.9%)의 수출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6.8%, 10.8%, 4.0% 증가
- 자동차(새시 포함), 가전제품 수출 수량은 각각 16.6%, 13.1% 증가. 휴대폰 수출 수량은 △7.5% 감소했으나 금액은 0.4% 증가

-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및 집적회로(비중 15.2%)는 전년 동기대비 수량, 금액 각각 8.1%, 3.2% 증가, 원유(12.9%)는 수량, 금액 각각 △1.5%, △8.1% 감소, 철광석 및 정광(4.9%)은 수량, 금액 각각 △7.8%, △27.5% 감소
-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85% 대폭 증가하고 동광석 및 정광도 3.9% 증가했으나, 천연가스, 의약품 및 약품은 각각 △16.0%, △6.8% 감소하고, 식량(곡류)은 수량, 금액 각각 △40.8%, △41.2% 큰 폭 감소

< 1분기 중국의 TOP 10 수출 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증감률	금액	증감률	비중
1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477	6.8	5.6
2	반도체 및 집적회로	761억 개	22.0	409	10.8	4.8
3	방직실 및 직물	-	-	333	4.0	3.9
4	의류 및 부자재	-	-	330	△1.9	3.9
5	휴대폰	16,753만 대	△7.5	279	0.4	3.3
6	자동차(새시 포함)	154만 대	16.6	257	2.2	3.0
7	플라스틱 제품	-	-	246	△2.6	2.9
8	가전제품	107,192만 대	13.1	242	8.7	2.8
9	자동차 부품	-	-	231	4.5	2.7
10	강재	2,743만 톤	6.3	194	△4.8	2.3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< 1분기 중국의 TOP 10 수입 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증감률	금액	증감률	비중
1	반도체 및 집적회로	1,313억 개	8.1	883	3.2	15.2
2	원유	13,525만 톤	△1.5	750	△8.1	12.9
3	철광석 및 정광	28,531만 톤	△7.8	283	△27.5	4.9
4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239	85.0	4.1
5	동광석 및 정광	711만 톤	1.8	172	3.9	3.0
6	천연가스	2,942만 톤	△10.0	139	△16.0	2.4
7	미단조 동 및 동재	130만 톤	△5.2	124	2.5	2.1
8	의약품 및 약품	73,162톤	△6.2	112	△6.8	1.9
9	1차 플라스틱	706만 톤	△1.9	103	△2.5	1.8
10	식량(곡류)	2,270만 톤	△40.8	97	△41.2	1.7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4

주요 경제지표

- 3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50.5로 2개월 연속 기준선(50) 상회, 생산자물가지수(PPi)는 전년 동월대비 $\Delta 2.5\%$ 하락,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$\Delta 0.1\%$ 하락
 - 세부 PMI 지표 중 생산지수, 신규 주문지수 등이 기준선(50)을 상회했으나, 원자재 재고, 종업원 지수 등은 기준선 하회
 - PPI($\Delta 2.5\%$)는 30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, 석탄 세척 산업, 철 금속 채광 산업, 철 금속 제련 산업 등의 공장 출하 가격 하락 영향 반영
 - CPI($\Delta 0.1\%$)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, 채소 $\Delta 6.8\%$, 소고기 $\Delta 10.8\%$, 운송용 연료 $\Delta 5.7\%$ 하락, 의류 1.5%, 교육 서비스 1.2% 상승

<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>

구 분	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'25. 2월	'25. 3월
경제성장률(%)		8.4	3.0	5.2	5.0	-	5.4 (Q1)
소매판매 증감률(%)		12.5	$\Delta 0.2$	7.2	3.5	4.0 (1~2월)	5.9
고정자산투자 증감률(누계, %)		4.9	5.1	3.0	3.2	4.1	4.2
산업생산 증감률(%)		10.4	3.4	4.6	5.8	5.9 (1~2월)	7.7
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(%)		50.3	47.0	49.0	50.1	50.2	50.5
소비자 물가지수 CPI(%)		0.9	2.0	0.2	0.2	$\Delta 0.7$	$\Delta 0.1$
생산자 물가지수 PPI(%)		8.1	4.1	$\Delta 3.0$	$\Delta 2.2$	$\Delta 2.2$	$\Delta 2.5$
실업률(기말, %)		5.1	5.5	5.2	5.1	5.4	5.2
외국인직접투자(누계, 억 위안, %)		11,494 (14.9)	12,327 (6.3)	11,339 ($\Delta 8.0$)	8,263 ($\Delta 27.1$)	-	-
비금융 부문 해외직접투자 (누계, 억 \$, %)		1,136 (3.2)	1,168 (2.8)	1,301 (11.4)	1,628 (10.1)	229.7 (9.1)	-
외환보유액(억 \$, 기말)		32,502	31,277	32,380	32,024	32,272	32,407
평균 환율(위안/달러)		6.4512	6.7208	7.0423	7.1203	7.1711	7.1737
한국의 대중국 무역 (억 \$, %) *한국 통계 기준	수 출	1,629 (22.9)	1,558 ($\Delta 4.4$)	1,248 ($\Delta 19.9$)	1,330 (6.6)	95 ($\Delta 1.4$)	100.9 ($\Delta 4.1$)
	수 입	1,386 (27.3)	1,546 (11.5)	1,429 ($\Delta 7.6$)	1,399 ($\Delta 2.1$)	95 (0.5)	113.7 ($\Delta 0.3$)
	수 지	243	12	$\Delta 180$	$\Delta 68.7$	0.3	$\Delta 12.8$

출처: 중국 국가통계국, 중국 상무부, 중국 인민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

주: 3월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 데이터는 잠정치임